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게

출가자들 자기비판적 모습을 가져야
사부대중 누구나 '덕 높은 스승' 가능

한국 불교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비판에도 무디다.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마저 끄고 멀리한다.

불교계의 밝은 미래보다는 눈앞의 안일함에 안주(安住)하며 손익계산이 우선이다. 경전 중심의 바른 신앙보다는 주술적 거래 신앙으로 의식(儀式)불교의 둘레를 넓히고 있다. 깨달음 중심으로 전개되어야할 포교의 현장에서는 방편 불교를 앞세운 운명론이 뱀의 허물처럼 길게 누워있다.

생명력이 없는 말장난으로 불교 미디어의 광고 사찰은 신앙을 매개체로 구걸 비슷한 떳떳치 못한 선전문구로 들떠있다. 겨우 실눈을 뜬 거짓 깨달음으로 신도들을 끌어 모아 세력 넓히고 명예 높이는 놀이에 분주한 가짜들도 늘고 있다.

거기다가 달력에 윤달이라도 박혀있으면 크고 작은 사찰이 잔치 벌리듯 전생의 빚을 꺼내들며 예수재 동참을 요구한다. 선배 후배는 당연히 세속적 잣대일수 있어 깨달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요즘의 풍속도에선 조직 집단처럼 힘의 논리가 우선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무리들이 무리지어 세력을 규합하고 표 단속을 하는 모습이 이솝우화에서 만난 우스개 우화 같다.

조실, 방장도 할 만큼 했으면 후학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보고 싶다. 어느 스님이 어떤 사찰에서 대중의 뜻으로 추대된 방장, 조실 자리를 마다하셨다는 아름다운 소식, 어느 스님과 어떤 스님이 원로의 원을 사양하시며 대종사 법계 품수도 멀리하셨다는 전설 같은 소식을 오늘의 현장에서 듣고 싶다. 연륜과 승랍이 깊어 가면 깊어진 모습으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꾸밈과 드러냄 없이 자유인으로 자연인으로 살 일이다.

챙기고 모으며 쌓아두려는 끌어당김에서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삶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출가이부중(出家二部衆)은 대접받는 문화에서 겸허하게 자기 비판적 달라진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함께 맞절하는 자세, 낮춤에서 시작하여 법당의 방석도 스님과 신도의 것으로 구분 짓지 말고 우열이 없는 평등성을 회복해야한다.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스님이라면 높게 마련된 법상에 올라 설법하는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형식과 격식을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지만 노교수(老教授)는 서서 강의하고 청년 승려는 법상에 올라야 높은 설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청법가에 있어서도 '덕 높으신 스승님'은 스님 몫만이 아닐 터이다. 사부대중 누구나 '덕 높으신 스승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TV에서는 끈질기게도 스님 법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깨달음은 학식의 높낮이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흥인 문하의 신수 스님은 행자 혜능에 밀려 육조의 법통에서 멀어지지 않던가.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앞섰고 선재동자는 직분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 깨달음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치 복(福)을 부르고 화(禍)를 면하게 해주는 주술적 신앙 거래는 없었는지 살피고 또 살펴 부끄러움을 줄여 나가야한다.

해마다 신도들이 차려주는 생일 잔칫상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승려의 장례문화도 간소하게 검소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법회에 초청된 법사 스님이라면 연륜과 수행력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찰이 든 봉투를 사양 없이 챙겨가는 모습도 마땅히 사라져야한다. 법보시(法布施)는 당연히 스님의 몫이요 의무이기 때문이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하고 스님의 생활은 청빈을 기본으로 바른 수행의 덕목을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큰 스님의 덕행(德行)을 기린다며 기념관을 만들고 생가(生家)복원을 서두르는 세태는 지극히 세속적인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끄러운 작태이다. 장학재단이나 인재양성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무주상(無住相)의 모습은 아닐 터이다.

세 발 당나귀가 절뚝거리며 간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선종을 오종칠가(五宗七家)라 하여 다섯 개의 종파와 뒤에 송대(宋代)에 들어와서 생긴 두 파를 합쳐서 말한다. 오종은 임제종, 조동종, 위앙종, 운문종, 법안종이며, 두 파는 양기파와 황룡파이다. 뒤에 생긴 두 파는 종(宗)이라 하지 않고 파(派)라 한 것은 하나의 임제종에서 분파되어 나누졌기 때문이다.

당대(唐代)에 오종으로 나눠져 선의 전성기를 이루어 번창했던 선종이 당말(唐末)에서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쇠퇴의 조짐을 보인다. 오종의 종파들이 그 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쇠해져 송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임제종에 포함되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 무렵 임제의 8세손에 해당되는 양기방회(楊岐方會:996~1049)가 등장한다. 양기파의 개조(開祖)다. 석상초원(石霜楚圓)의 제자였던 그가 원주(袁州:江西省) 보통선원(普通禪院)에 주석하면서부터 자신의 선풍을 크게 드날리게 되었다.

〈속전등록〉 7권에 양기가 어떤 학인하고 문답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 그를 친견하러 온 학인에게 물었다.

"구름은 깊고 길은 험한데 높은 가마를 타고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는 사방으로 막힌 벽이 없습니다."

"수행하러 다니느라 짚신은 몇 컬레나 갈아치웠는가?" 학인이 할(喝)을 하였다.

"한 번 할을 하고 두 번 할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스님께서 허둥지둥 하십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으나 주장자가 없구나. 앉아 차나 마시게."

양기에 의해 제시된 명공안(名公案)에 '세 발 당나귀(三脚驢)'가 있다. 그가 보통선원에서 개당을 하면서 설법을 하고나자 나이가 많은 한 학인이 물었다.

"스님은 어떤 가문의 가풍을 이어받았습니까?"

양기가 대답했다. "말이 있으면 타고 가고 말이 없으면 걸어간다." 학인이 다시 말했다. "소년 장로의 기연(機緣)이 매우 치열하십니다."

양기가 웃으면서 "내가 그대의 나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20방을 칠 것을 그만 두겠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학인이 일어나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세 발 당나귀가 발목을 놀려 절룩거리며 걸어간다."

이 말이 나중에 명공안이 되었다. 발이 하나 모자란 세 발 당나귀가 절룩거리며 가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 유명한 공안이 된 것을 어쩌란 말인가? 명공안이란 수선자들(修禪者)에게 많이 회자(膾炙)된 공안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마조가 쓴 '평상심이 도' 운문이 쓴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임제의 '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조주의 '차나마시게(喫茶去)' 등이 선가에 널리 회자된 공안이라 한다.

양기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양기가 스승 자명에게 자주 불법에 대해 물었다. 스승은 속 시원히 말해주질 않았다. 어느 날 다시 물었다 "도대체 불법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네 맡은 일이나 잘 하여라."

어느 날 스승 자명이 출타를 하였는데 비가 쏟아졌다. 양기는 자명이 돌아오는 길목 나무 밑에 숨어서 자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자명이 나타났다. 별안간 뛰쳐나온 양기가 자명의 멱살을 쥐고 욱박질렀다. "말해 주시오. 불법이 뭔지. 말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소."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도 자명은 조용히 부드럽고 침착하게 말했다.

"네가 이럴 줄 알면 됐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양기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양기는 임제의 종풍을 후세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황룡파가 일찍 쇠멸해 버렸으나 양기파가 살아남아 후세까지 선맥을 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불교의 맥도 임제의 법맥을 이었다. 고려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 선사가 중국에서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어 받아 돌아오고부터 실질적인 임제 법맥이 전해진 것으로 본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⑨ 동업중생의 삶이란?

勝施他苦品第十九

菩薩見他苦時æ 是菩薩極苦。見他樂時즉是菩薩大樂。以是故菩薩恒爲利他。凡愚眾生見他苦時自己爲樂。見他苦不以爲苦。賢人者自苦以樂樂他不以己苦。凡愚眾生爲己少樂而大苦他。賢人者爲與他少樂自受大苦。惡行者修少樂因得大樂時雖生歡喜。不及菩薩以少樂利他人時心大歡喜倍過於是。菩薩見他受苦以身代之。身雖受苦不以爲苦。心中快樂生大歡喜。菩薩悲心得自在樂。不爲三有諸苦之所逼惱。菩薩飮悲甘露故不爲諸苦所苦。不爲苦所苦故能爲他受苦。凡愚眾生見他苦時心中生樂。見他樂時心中生苦。菩薩見他苦時則苦樂時則樂。無悲心者見他苦時如月極冷。有悲心者見他受苦如夏盛日。不問愚智見他苦時。皆生厭離生憂惱因。有悲心者深生憐愍作決定心。一切眾生苦爲是我苦。

번역 | 승시타고품 제19.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즉시 보살도 극히 괴롭고 타인의 즐거움을 보면 즉시 보살도 크게 즐겁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범부 어리석은 중생은 타인의 괴로움을 볼 때 자기가 즐겁고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현인은 자신은 괴로워도 타인의 즐거움을 즐거워함으로써 자신은 괴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범부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적은 즐거움을 위해 크게 괴롭고, 현인은 타인에게 적은 즐거움이라도 주려고 스스로 큰 괴로움을 받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는 적은 즐거움을 닦은 인연으로 큰 즐거움을 얻을 때 비록 좋아하지만, 보살이 적은 즐거움이라도 남을 이롭게 할 때에 미치지 못하며 마음에 기쁨은 이보다 배나 더합니다. 보살은 타인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신이 대신 받으려 하고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 심중에 즐겁고 큰 기쁨을 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자재락(自在樂)을 얻되 삼계의 모든 괴로움으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비의 감로수를 먹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으며,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기에 타인을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남의 괴로움을 보면 심중에 즐거움을 내고, 타인이 즐거울 때 심중에 괴로움을 내지만,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괴롭고 즐거울 때 즐겁습니다.

자비심 없는 이는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달처럼 차갑지만, 자비심 있는 이는 타인이 괴로움 받는 것을 보면 여름의 해와 같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불문하고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모두 싫어 떠나며 근심과 번뇌의 원인을 일으키지만, 자비심 있는 이는 깊은 연민을 내며 결정심(決定心)을 지어 일체 중생이 괴로우면 즉시 나도 괴롭습니다.

해설 |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가 없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에게 윤회가 없다는 말과도 상통하는데, 이 말을 보살은 '윤회 속에 뛰어들어도 윤회한다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로 달리 해석하고 싶다. 보살은 자신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오로지 중생이 괴로울 때다. 보살이 보리(菩提)를 이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뿐이다. 바로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나는 청정한데 너는 잘못이라는 이분법적인 대처가 아닌, 타인의 과보에 함께 책임을 지는 동업중생의 삶을 놓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기적 존재는 상호 연관성의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서 한 아이가 굶어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지구라는 곳에 함께 사는 지금의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기적 존재다. 그러니 보살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투성이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公 告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이 변경 되었기 선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종단은 불법승 삼보를 신행하고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증흥의 새 일꾼이 되어 새 시대 총화불교의 실천자로서 종파를 초월하고 애국 애족 하는 호국 불교에 매진하여 불타의 자비 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1982년 3월 26일 문화 공보부로 종교법인 제 1호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제 393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8월 8일 주무관청인 문화 체육관광부 제393호로 법인 설립허가 명칭을 원융종으로 변경 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 종도 여러분은 현 사.암 등록증과 주지 임명장 등 승려증 및 유승증을 총무원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재교부받지 않은 모든 문서는 본 종에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원융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배진호

※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광고에 기재되는 임원 명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